

매수 사이드카 코스닥, 8월에만 +18.8%

KOSPI 6,299pt(+0.7%), KOSDAQ 855pt (+7%)

① 해외 사항 금리 불안감에 다음주 물가지표 경계감

- 주말 미국 주식시장 상승(나스닥 +1.3%, S&P500 +0.6%, 다우 +0.3%,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2.6%). 비농가고용 예상치 하회
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미국-이란 협상 기대감 동시에 작용. 7월 비농가 고용, 예상치(+8만) 크게 하회(-2.3만). 5~6월 수
치도 하향 조정. 이번주 소비자-생산자 물가 앞둔 경계감 여전히 잔존. 시장금리 방향성은 이번주 소비자물가 따라 결정될 전망.
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과정 역시 추가적인 악재는 발발하지 않았음

② 수급 KOSPI 외국인 자금 유입 안되며 추세적 반등에 지속 실패 중

-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+0.9조, 외국인 -1.5조원, 기관 +0.6조원 순매수. KOSDAQ은 외국인-기관 동반 순매수 속 금융투
자(ETF), 투신 자금 동반 유입되며 저가매수세 유입 지속

③ 특징업종 전자닉스 쉬어가니 중소형주 날아오른다

- 1) **우주항공**: 제2우주센터 추진 및 미 우주항공주 강세. 센서뷰(+17.7%),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(+11.1%) 2) **보안**: 삼프로TV 개
인정보 대규모 유출. 비트플래닛 +18.9%, 핀텔 +18% 3) **제약/바이오**: 키트루다 SC 판매 호조에 따른 플랫폼 가치 재평가 기대.
알테오젠 +14.1%, 보로노이 +19.4%

④ 이벤트 시장금리 영향 미칠 물가지표 온다

- 1) 美 7월 CPI(8/12 21:30), PPI(8/13 21:30)

⑤ 상황 코스닥과 전자닉스의 시소게임

- 금일 KOSPI, KOSDAQ 각각 0.7% 7% 상승. 결국 '수급'이 핵심이고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현재 KOSPI 강한 반등
을 위한 동력임을 재확인. 개인은 앞선 6월까지의 신고가밸리 과정과 유사한 순매수 주체가 될 수 없음. 삼성전자(-0.4%), SK하이
닉스(-0.1%) 외국인 4거래일 연속 순매도 지속되며 지속해서 박스권 등락. 7월 31일 급반등 이후 재차 가격 조정 흐름. 지난 7월
고용이 예상치 크게 하회했음에도 여전히 이번주 물가지표 발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기금리 큰 하락폭 미미 & 경계감 존재
= 외국인 강한 순매수 저해하는 요인. 미국-이란 협상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여전히 노이즈.
- KOSPI는 장초반 6,400pt에 접근했으나 삼성전자-SK하이닉스 부진한 영향에 상승폭 축소. 애플의 CXMT 메모리 테스트 보도 등
이 노이즈로 작용. 다만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 SK하이닉스의 3분기 내 실적 발표 예고(기존 연내)와 삼성전자의 추가 주주
환원에 대한 기대감, 여전히 낮은 12개월 선행 PER은 지수 낙폭은 제한시키는 요인. 반면, KOSDAQ은 7% 급등하며 850pt 상
회. 장중 매수 사이드카 발동. 외국인-기관 동반 순매수에 바이오, 반도체 소부장 포함 대부분의 업종 상승. 시장의 무게감은 대형
주 쉬어갈 때 중소형주로 지속 이동하는 흐름. KOSPI도 대형주(+0.5%) 대비 중형주(+1.9%), 소형주(+2.2%) 아웃퍼폼하며 상승
종목 697개 대비 하락종목 183개로 지수는 강보합이었으나 온기 확산은 지속되는 흐름
- 전략)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에 따른 효과로 KOSDAQ의 반격 가능성을 지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음. 최근 시장의 큰 변화는
전자-닉스 쏠림 현상 완화와 해당 종목 상승하지 않아도 지수는 상승한다는 점. 실적 및 개별 모멘텀 보유한 중소형주로 향하는
개별종목 장세 전개. KOSDAQ은 그 와중 수급 효과로 낙폭 초과대 구간 진입했던 7월까지의 장세에서 KOSDAQ150 지수 등 지수
추종 금융투자의 패시브 자금 유입되며 8월 수익률 KOSPI 크게 아웃퍼폼 중인 흐름. KOSDAQ 현재 120일선은 1,027pt로 해당
경기선까지의 반격 여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 유지. RSI(14일) 등 기술적 지표도 7/29일 과매도 구간 도달 이후 여전히 56
에 불과. 과매수 구간 도달하기엔 멀었다는 판단.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예상 대비 강하고, 시장금리 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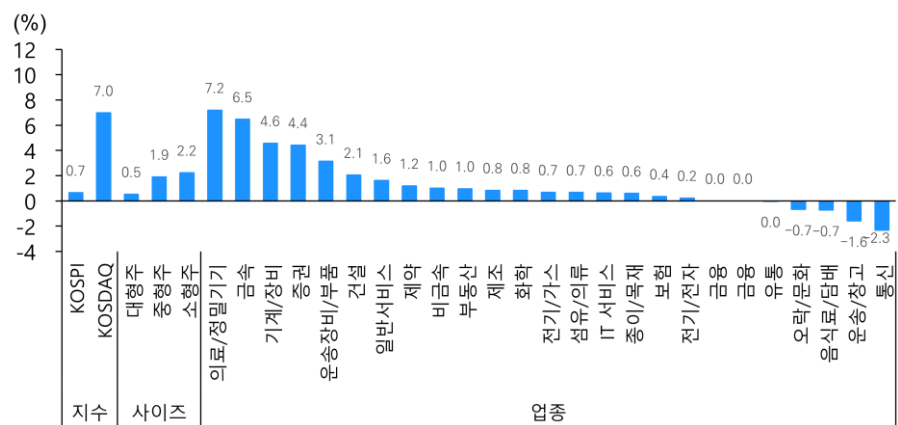
정화 이뤄진다면 현재 중국발 메모리 우려, 가격 정점 우려 모두 상당부분 주가에 선반영 되어있기에(주주환원 정책 발표에도 금일 주가에는 반영 안됨, 여전히 지수 하단 지지하는 압도적으로 낮은 12개월 선행 PER 등 확인) 대형주 뒤집기 장세 역시 전개될 가능성 충분. 내년까지의 이익 모멘텀 및 주주환원 모멘텀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순매수 주체의 부재(외국인)가 KOSPI 상승 저해중인 것으로 판단. KOSDAQ에서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하며 매수주체가 사라졌던 상황과 유사(7월까지, 레버리지ETF 영향). 1) 중소형 주의 1차 수급 분산 및 정상화 이후 2) 대형 반도체 밸리(주주환원 정책 및 시장금리 안정화) 재개라는 시나리오 및 전략 유지

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

(단위: 억원)	KOSPI	KOSDAQ
기관	5,669	5,662
외국인	-14,886	1,032
개인	9,003	-6,731
거래대금	188,402	70,673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일간 수익률



자료: 인포맥스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이재원)
-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